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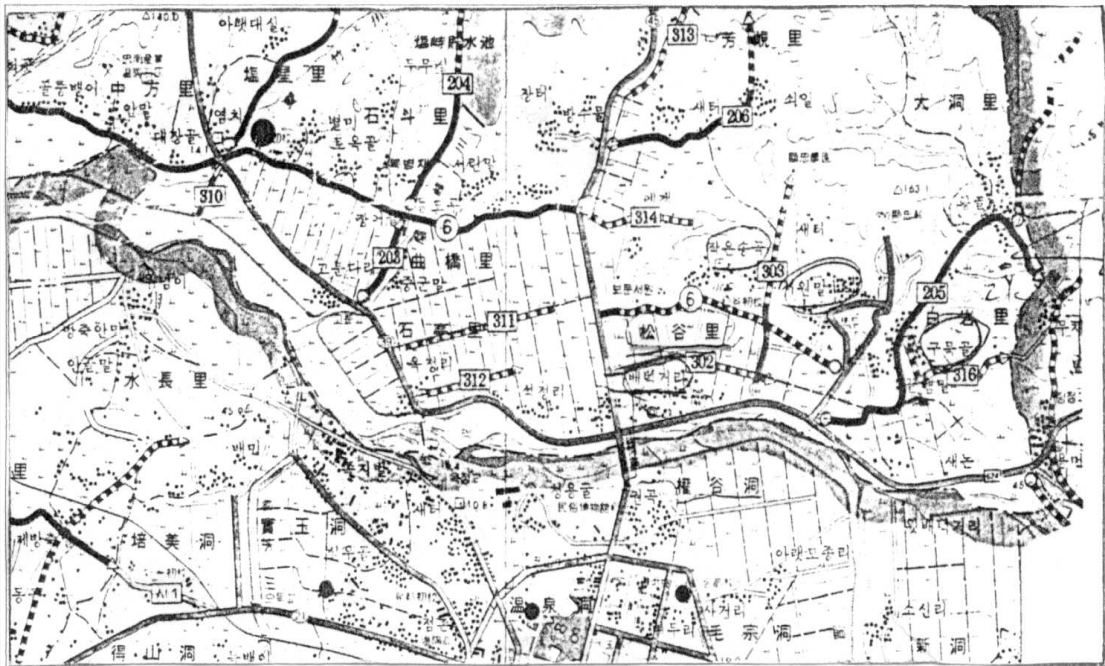
송곡리·松谷里

송곡리·松谷里

<구연자 : 아산시 염티읍 송곡1리 유영갑(66세)>

염티읍의 한 마을로 큰송곡과 배덕거리 마을로 이루어졌으며, 큰송곡리의 가장 큰 마을이라 하여 큰 송곡리리라 하며, 배덕거리 마을은 배터가 있는 마을이라 큰 송곡은 농업을 주로 많이 하며, 배덕거리 마을은 기타 서비스업종이 많으며, 총 호구수는 308호이다. 본래 아산군 근남면의 지역으로서 금병산 속에 있으므로 속골이라던 것이 변하여 송골 또는 송곡이 되었는데 1914년 송곡리라 하여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송곡리 위치도>



⊗ 큰 송곡, 배덕거리 마을(송곡리)

송곡1리는 큰송곡, 작은송곡 마을로 이루어졌으며, 큰송곡은 금병산 속에 있는 큰 마을이라 하여 유래 되었으며, 작은 송곡은 큰 송곡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 해서 불리워졌다. 송곡 1리에 은골, 버랭잇골(속골)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송곡 2리는 배덕거리라 하는데 배터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배덕거리라 불려지고 있다.

<조사당시 송곡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 치

큰 송곡 마을은 위도 36-47-00, 경도 127-00-5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아산시 권곡 동에서 북쪽으로 1.5km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500m 정도 들어가면 송곡이 나온다.

배덕거리 마을은 큰 송곡(송곡1리)에서 마을 안쪽으로 400m 가면 나오는 마을로 배덕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배덕거리라 한다. 이 마을은 예전에 나루터였다고 한다.

2) 현 황

큰 송곡 마을에 총 인구는 265명으로, 남자 130명, 여자 135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72호에 이르고 있다. 주민의 52%가 농업에 종사하고, 3%는 축산업에, 나머지 45%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배덕거리 마을에 총 인구수는 772명이고, 그 중 남자는 398명, 여자는 374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236호에 이른다. 주민의 29%가 농업에, 1%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70%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큰송곡마을	265명	130명	135명
배덕거리마을	772명	398명	374명

- 생 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 업	축산업	서비스업
큰송곡마을	100%	52%	3%	45%
배덕거리마을	100%	29%	1%	70%

큰 송곡마을의 농경지는 논 33ha, 밭 18ha이다. 농기계는 동력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양수기, 병충해방제기, 이앙기, 예취기등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고, 앰프시설이 비치되어 있다. 송곡초등학교와 의료기관으로 병원이 하나 있다.

배덕거리 마을의 농경지는 논이 24ha, 밭이 15ha이다.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양수기, 병충해방제기. 이앙기, 예취기등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로 앰프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큰송곡마을	51ha	33ha	18ha
배덕거리마을	39ha	24ha	15ha

- 문화 시설

구 분 마 을 명	계	마을회관	병원	기타문화시설
큰송곡마을	2개소	1개소	1개소	-
배덕거리마을	2개소	1개소	-	-

큰송곡 마을이 이씨가 17호로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그 외에도 김씨, 홍씨가 살고 있다. 연령층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대덕거리 마을은 김씨 13%로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그 외에도 박씨, 이씨, 정씨등이 살고 있다. 큰 송곡 마을보다 인구수가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학생수 및 세대별 인구수가 매우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마을은 젊은층이 두드러지게 분포한다. 초등학생들은 모두 송곡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홍씨	이씨	김씨	박씨	정씨	기타
큰송곡마을	72호	8호	17호	15호	-	-	32호
배덕거리마을	236호	-	29호	31호	17호	8호	151호

- 최고령자

큰 송곡 마을의 최고령자는 박 향춘씨로 올해 95세이시며, 활동이 불편하시며 배덕거리의 최고령자인 홍승연씨로 올해 88세이시며, 건강하신 편이다.

3) 자연경관

큰 송곡마을 동쪽에 아산제일병원이 있고, 이 병원 뒤로는 높이 130m의 금병산이 병풍처럼 되어 있다. 금병산 동쪽에는 매편이라는 산이 있는데, 세조 10년 3월에 세조가 온천에 거동하였을 때 이곳에 와서 사냥을 하고 대신들에게 술을 내려준 후 장자못에 가서 놀다가 되돌아 갔다고 한다.

배터거리 마을은 중앙 부분에 구시청이 있고, 도로 아래에 마을이 있으며,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상가가 종종 눈에 띄며 병원이 있으며 그 마을 앞으로는 곡교천이 흐르고 있다.

4) 마을변천과정

큰 송곡마을과 배터거리 마을은 아산군 근남면의 지역으로서 금병산 속에 있으므로 속골이라던 것이 변하여 송골 또는 송곡이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송리, 외송리, 권곡리와 온양군 이북면의 소정리와 서면의 실옥리를 병합해서 송곡리라 하여 아산군 염치읍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큰 송곡 마을의 가장 오래된 성씨는 남양 홍씨로 지금 17대까지 마을에 살고 있으며, 이것으로 보아 큰 송곡 마을은 서기 1470년경 약 51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배터거리 마을은 일본 사람들이 강의 뚝을 막아서 뽕나무 밭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생긴 마을로서 역사가 그리 깊지 않으며, 서기 1900년 약 100년경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6) 지 명

十 큰송곡 마을 지명

- 큰송곡 : 금병산 속에 있는 큰 마을이라 하여 큰 송곡이라 함
- 가장들 : 송곡 앞 장자 못가에 있는 들.
- 버랭잇들 : 작은 송곡 북쪽에 있는 들.
- 맹터 : 맹터 밑에 있는 들인데 20년 전에는 작은 동산이었다고 하며, 그런데 이 산이 없어진 이유는 경지 정리할 때 이 산을 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함.
- 장자못(장자지) : 송곡 남서쪽. 곧 금병산 남서쪽 끝에 있는 큰 못. 둘레 6,000여평, 깊이가 3길에 넘음. 예전에 이곳에 홍씨가 큰부자로 사는데 너무 인색하여 하루는 중이 시주를 청하매 홍씨가 호통 끝에 두엄을 떠 주었는데 마침 그 며느리가 이 광경을 보고 몰래 쌀을 떠가지고 그 중을 쫓아가며 애걸하는데 별안간 천지가 무너지는 듯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집터가 큰 못이 되어 버리고 그 며느리만 살아났다 하며, 날이 가물면 이곳에 기우제를 지내고, 세조 10년(1464) 3월 15일에 왕이 온천에 왔다가 맹현에 거동하여 대신들에게 술을 하사하고 이곳에 이르러 놀다가 돌아갔음.
- 맹터(맹현) : 금병산 동쪽에 있는 산으로 세조 10년(1464) 3월에 세조가 온천에 왔을때 이곳에 와서 사냥을 하고 대신들에게 술을 내려준 후 장자못에 가서 놀다가 돌아갔음.
- 속골(버랭잇골) : 금병산 속에 있는 마을로 너무 후미져서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
- 은골 : 큰 송곡 서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삼태미처럼 아늑하다 하여 불리워졌으며, 은골터에 지금은 보문사라는 절이 들어가 있어 인가는 살지 않고 있음.

·작은송곡 : 큰 송곡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十 배터거리 마을 지명

- 배터거리 : 배터가 있는 마을.
- 금병산 : 송곡 뒤에 있는 산으로 높이 130m로 병풍같이 되어 있음.
- 미리못(미련못, 미려지) : 장자못 남쪽에 있는 못으로 넓이 500여평이 되는데, 옛날에 용이 올라갔다고 하며, 그런데, 1964년에 논을 만들었음.
- 홍도령 못 : 배터거리 서쪽에 있는 못으로 홍도령이 한 처녀를 사랑하다가 그 처녀가 다른곳으로 시집을 가자 슬픔을 못이기어 이곳에 빠져 죽었다고 함.
- 위 배터거리 : 송곡에서 온양 모종리로 가는 배터로 나루터임.
- 배터거리(송곡나루터) : 송곡리에서 온양 권곡리로 건너가는 나루터임.

7) 전 설

十 장자못의 전설 (큰송곡 마을)

송곡 남서쪽, 즉 금병산 끝에는 장자못이란 둘레 6,000여평, 깊이 3걸이 넘는 큰 못이 있었다. 이곳의 전설은 이러하다. 옛날 돈 많고 욕심장이 노인이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욕심장이 이 노인이 빨리 죽기를 바랬지만, 이 노인은 더욱더 재산을 모았다. 어느날 늙은 스님이 시주를 해달라고 왔는데,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하고, 시아버지께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시아버지 몰래 쌀을 시주하던 중 욕심장이요, 심술이 많은 노인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 노인은 스님에게 드렸던 쌀을 빼앗고, 그동안 시주해 온 쌀자루를 모두 빼앗고, 시주자루에다 외양간에서 가지고 온 쇠똥을 가득 넣어서 대문 밖으로 내쫓았다. 마음씨 착한 며느리는 시아버지님 행동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에 스님께 사과하려고 스님한테 갔다. 이 스님은 며느리에게 "시아버지의 행동은 나쁘지만 며느리는 착한 것 같군요. 지금 곧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집에서 멀리 가야 재산을 피할 수 있어요."하고 가버리셨다. 스님이 말한대로 며느리는 그대로 집을 나와 가던 중 와르르르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가본 즉, 그 으리으리한 집과 넓고 기름진 문전옥답이 큰 연못으로 변하여 지금의 장자못이 되었다고 전하며, 며느리는 뒤를 돌아본 순간 바위로 변하였다고 전한다.

十 홍도령 못에 대한 전설 (배덕거리마을)

옛날 어떤 곳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서 늘 쓸쓸해 하고 있었다. 어느날, 부인은 남편에게 "구령이라도 좋으니 아이를 하나 낳아 봤으면 좋겠어요."하고 말했다. 그런데, 부인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그 후 부인은 정말 아이를 갖게 되었다. 달이 차서 아이를 낳으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구령이었다. 부인은 남보기에 부끄러워서 감추었지만 구령이도 자식이기에 '홍도령'이라 부르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숲속에서 살았다. 어느날 구령이가 어머니께 말했다. "저도 장가를 들어야 할터이니 아랫마을 황부자집 셋째딸에게 의향이라도 좀 물어봐 주세요."하자 어머니는 네 처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타일렀지만 막무가내였다. 어머니는 부자집 대문 앞에 이르러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그녀를 본 황부자가 까닭을 물어보기에 자초지정을 말해주었다. 부자집 주인은 그럼 한번 물어나 보자며 첫째, 둘째딸에게 구령이에게 시집을 가겠느냐고 물었다. 그렇지만 두 딸은 펄쩍 뛰면서 싫다고 했다. 하지만, 셋째딸은 아버지 말을 듣고 나더니"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찌 제가 좋다, 나쁘다 말하겠습니까?"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셋째딸은 구령이와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식날 두 언니를 비롯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흥한 허물을 비웃었다. 드디어 첫날밤이 깊어 자정이 되자, 구령이 신랑은 흥한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 허물을 벗은 신랑의 모습은 정말 잘 생기고, 늙름한 남자였다. 이때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 본 두 언니는 "이럴줄 알았다며 내가 시집갈걸....."하고 억울해 하였다. 마침내 신랑은 구령이 허물을 신부에게 맡기면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여도 안되고, 불에 태워도 안되며, 약속을 어길시에는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뒤 먼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두 언니는 동생의 웃고름에 매달려 있는 조그마한 주머니를 보고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안된다고 거절을 하였지만, 나중에 언니들이 화를 내자 할 수 없이 보여주었다. 두 언니들은 재빨리 그 허물을 화로불에 넣어버렸다. 신부는 한없이 슬피 울다가 그 마을에 있는 연못에 빠져 죽었다. 그 후 하루, 이틀... 한달, 두달이 지나 긴 여행을 마친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으나 와보니 신부는 없고, 두 언니들이 몸치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유를 묻자, 두 언니들은 동생이 허물을 불에 태우고는 그 연못에 빠져 죽었다고 말했다. 홍도령은 탄식하여 슬퍼하다가 자기도 그 연못에 몸을 던졌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인 집단행사

큰송곡 마을에서는 날이 가물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세조 10년 3월 15일에는 왕이 온천에 왔다가 맹현에 들르게 되어 대신들에게 술을 하사하고 이곳에 이르러서 놀다가 돌아갔었다고 한다. 그러나, 1964년에 경지정리로 이 못을 메우고 논을 만들었다고 한다. 음력 1월 초닷새가 되면 마을에서는 금병산에서 산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산제를 지내는 사람은 전날 목욕제계를 했고, 산제가 끝나면 산제를 지냈던 음식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배덕거리에는 백중놀이하여 음력 7월 15일에 열리며, 21년째 하고 있다. 이때는 기관장들을 초청하여 노인분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베풀며, 기관장들의 시상식등 다채롭게 진행한다.

9) 소개할만한 인물

十 홍익현(洪翼賢:이조)

자는 군우(君友) 본관은 남양(南陽), 대사헌(大司憲) 홍지(興之)의 증손(曾孫)이며, 기묘명현(己卯名賢) 사부(士府)의 손자(孫子)이다. 과거(科擧)보는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며 추천(推薦)을 받아 시흥제방(始興祭訪)과 수연판관(水運判官)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모두 취임(就任)하지 않았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끝난후에 아산군 염치읍 송곡리에 와서 우거(寓居)하면서 촌명(村名)으로써 스스로 송곡(松谷)이라고 호를 지었다. 장자지(長者池) 호반(湖畔)에 은거실(隱居室)을 지어 즐기면서 문을 닫고 학문(學問)을 연구(研究)하였으며, 몸가짐이 청고(淸高)하고 가훈(家訓)이 기(其)히 정돈(整頓)되어 모든 고장 사람들이 경모(敬慕)하였다.

이 충무공이 아직 현달(顯達)하지 못했을 때에 홍송곡(洪松谷)이 서평(西平) 한준겸(韓浚謙)과 서애유성룡(西崖柳成龍)에게 말하기를 "이모(李某)가 너그럽게 용맹(勇猛)하며 서로 구제(救濟)하기를 힘쓰니 마땅히 큰 그릇을 이룰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과연(果然)뒤에 이와 같음을 보고 부시(富時)의 재상(宰相)들이 사람을 알아보는 그의 식견(識見)에 탄복(歎服)하였다.

단암(丹巖) 민진원(閔鎭遠) 상공의 그의 묘지(墓誌)에 "몸이 학문(學問)을 쌓아 거취(去就)를 가며이 하지 않았으며, 후학(後學)을 사숙(私淑)하게 하여 유풍(儒風)을 진흥(振興)시키고 세교(世敎)를 부식(扶植)하였으니, 옛적에 이른바 은군자(隱君子)란 바로 공이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기록(記錄)하였다.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

10) 종교단체

큰 송곡마을에는 종교단체가 없으며, 배덕거리 마을에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송곡 중앙장로교회와 송곡 감리교회이다. 송곡장로교회는 성도수가 300여명에 이를만큼 크고, 송곡 감리교회는 30여명 정도로 작은 건물이다.

11) 공장현황

마을에는 공장들이 들어서 있지 않으며, 단지 배덕거리에는 상가들이 많아 이곳에는 회사들이 있고, 또한 옛 시청 건물에 테크노 파크라하여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큰송곡마을에는 큰 병원이 오래전부터 들어서 있다.

12) 마을 특성

큰송곡 마을은 산밑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송곡 초등학교가 있고, 마을 회관 앞에 오래된 정자나무가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빌라가 들어서려 했으나 부도가 나서 현재는 흉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으며, 주로 벼농사를 많이 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의 심성은 매우 좋고, 애경사시 서로 돕는 정이 있다.

배덕거리 마을은 대부분 가옥들이 잘 지어진 한옥들이 많으며, 상가들이 많고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비닐하우스에 주로 무우, 배추, 상추, 오이등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